

과테말라 선교보고 (제 55 호)

12 월 10 일. 2020 년

공항과 교회가 열린다

Covid 19 으로 인하여 3 월초에 폐쇄 되었던 공항이 6 개월만에 많은 규정 (72 시간안에 coronavirus 검사 음성판정 결과 증명서 지참 등) 과 함께 다시 열리고, 교회는 10 월초에 제 2 교회가 역시 많은 규정과 함께 정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제 1 교회는 12 월 첫주에 만 9 개월만에 시에서 요구하는 규정(교인 절반 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어린이 모임 금지, 등) 에 의하여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적 교인 절반씩 두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대부분 교인들이 출석하여 오랫동안 목침 높혀 눈물로 찬양하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현지 선교사는 주님의 은혜와 여러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어려운 중에도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부분적으로나마 사역에 열중할 수 있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언라인 신학교

교회나 각급학교의 모임이 금지된 상태에서 신학교는 언 라인으로 공부를 계속 했는데, 학생들이 일할 수 없고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 공부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그 동안 모여서 공부할 때 사용하던 숙식 비용을 그들의 학비 보조로 사용하여 그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개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2 명의 학생들이 2020 년도 학기를 마치고 2021 년 3 월에 개강하게 되는데 계속 언 라인으로 공부할지 모여서 공부할지는 아직 미정 입니다. 계속 기도 부탁 드립니다.

돕는 손길

Covid19 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차단되어 과테말라 국민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 후원교회와 개인과 단체들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최소한의 식품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되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LA 선한 청지기 교회 와 시카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금년에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 하기위해 년초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공항이 폐쇄되어 올수가 없게되자 년초에 예산을 현지로 보내 주셔서 어려운 현지인들을 도우라고 하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시애틀 뵤엘교회에서는 어려운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후원금을 인상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고, 개인과 단체들이 본인들도 어려운 처지에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 오셔서 지난 5 개월동안 교인(81 가정)들에게 양식을 사서 나누었고, 매월 월세를 내는 가정에는 월세를 도왔고, 교회 모임이 금지되어 교회 헌금이 전혀 없어서 목회자들 생활이 어려워져 목회자들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으나 그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에 동참해 주신 여러교회와 개인과 단체에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2 교회 건축공사

제 2 교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기도하던 중 샌프란 시스코의 이강민 장로님께서 \$10,000.을 현금해 주셔서 중단되었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붕을 덮고, 창문을 달고, 전기공사를 마치고, 천정을 달고, 현재는 성전 바닥 타일을 깔고 있습니다. 500 명을 수용하는 성전 모습이 하나하나 변해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전공사를 위해 여러모로 현금해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시카고에 계신 신연희 권사님께서 세탁소를 하시는데 세탁소가 잘 안되어 마스크를 만들어서 팔아 모은 돈을 건축현금으로 보내 오셔서 받는 선교사는 가슴이 뭉클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모저모로 동참해 주셔서 아직 공사가 중단 되지 않고 진행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처럼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것이 아니라 동역자님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현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어두움의 터널에 갇혀있는 것 같은 암울한 2020 한해에도 쉬임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과테말라로 향한 쉬임없는 기도와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복된 성탄과 희망의 새해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최상득,경희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현지선교사의 건강과 안전
- 2, 제 2 교회 성전 건축 중단되지 않도록
- 3, 현지 목회자들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
- 4, 속히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식품 지원

월세 지원

제 2 교회 첫예배



제1교회 첫예배 (9개월만에)

제2교회 건축중

내부바닥 타일공사중